

목포시 '눈물겨운' 정부 공모사업 따내기

재정 확충·지역 발전 두 토끼 잡기...상시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 관광 발전 획기적 계기 될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응모 총력전

재정이 녹록치 못한 목포시가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눈물겨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빈 공간을 채우고 동시에 지역발전도 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목포시는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중앙부처, 전남도 등의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목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응모해 초기 준비 단계부터 선정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그런 가운데 김종식 시장이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 공모'에 응모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이달 초 정부 에너지 융·복합단지 선정 때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김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북에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에 도전한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 북을 통해 김 시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관광 브랜드 전략수립, 특화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 등에 최대 5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선정한 관광 도시라는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파급력이 막강해 목포시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거점도시 선정 방향이 '고유한 지역관광 브랜드를 가진 도시로써 글로벌(glocal)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세계 수준의 관광자원을 갖춘 도시'라며 목포시가 그동안 관광목포 브랜드를 위해 걸어온 길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남만항구 목포 브랜드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목포관광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목포가 만들어낸 3대 브랜드와 상

품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되기를 희망하며 목포의 자원을 토대로 목포의 매력을 발산시켜 목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솔직한 심경까지 곁들였다.

이를 접한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댓글이 수백 건 올라오면서 지역사회에 화두가 됐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관광거점도시 유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김 시장의 의도가 제대로 먹힌 셈이다.

이를 두고 시청 내부에서는 "김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이처럼 김 시장이 전면에 나서 주요 선정 현안을 직접 챙기는 일이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다. 기강을 잡고 중반기를 맞아 조속히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목포시의 공모사업 선정 실적을 살펴보면 김 시장이 고군분투에 나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난다.

2017년에 40개 분야에서 495억6800만 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30개 분야서 571억6500만원으로 최고조에 달했지만, 올해는 40개 분야 262억9300만원(10월 말 현재)으로 쪼그라들었다.

대형 공모사업에 미 선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목포시의 해명이다. 재정이 열악한 목포시 입장에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내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절실해졌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이달부터 각 부처별 연간 공모사업 자원 규모와 시기를 파악한 뒤 내년 1월까지 '2020 중앙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서별 공모 계획 보고회'와 '공모사업 응모 대응 직원교육' 등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게 목포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공모사업 제도와 관련 ▲일정 비율 지역 안배 ▲지방별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 제안 등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유달 유원지에 스카이워크 들어선다

14억 들여 길이 54m 조성...또 하나의 명소로



'남만항구 목포'의 명소가 될 '스카이워크 포토 존'이 조성된다.

스카이워크(조감도) 조성사업은 해상 케이블카의 뷰를 살리고 고하도에서 목포대교를 거쳐 대반동 해안에 이르는 경관자원의 조망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객들의 새로운 볼거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목포시 관광과에 따르면 유달 유원지에 들어서는 스카이워크 길이는 당초 30m에서 54m로 늘었고 너비는 3~6m다. 바닥 자재는 '데크와 스틸(50%)+ 강화유리(50%)' 복합 형태로 건립된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14억원(5대 5 매칭)이 투입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 안전, 스틸 등 3가지를 고려하면서 스카이워크 기능을 살리기 위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바다 쪽으로 많이 돌출되도록 했다"면서 "남만항구 목포를 명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업은 대반동 인어바위가 사업 대상이었으나 후보지가 5개소로 난립하면서 사업이 지연돼오다가 지난 3월 최종 유달유원지로 결정됐다. 유달 유원지는 현재 상가 건물이 12m로 수직고가 확보돼 별도의 계단 설치가 필요 없고 상가 옥상에 광장이 조성돼 있어 경관 확보와 사업비 절감 측면 등에서 이점이 많아 최적지로 꼽혔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SNS홍보팀 신설 '소통행정' 박차

시정 소식 실시간 제공

목포시가 공보과에 'SNS 홍보팀' 신설을 계기로 시정소식과 행정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소통행정'에 힘을 쏟는다.

목포시는 "SNS 매체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게시해 시정소식은 물론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공감·소통행정'을 실현하는 사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가 운영 중인 매체는 페이스북(2013년 개설), 카카오톡(2017년), 인스타그램(2017년), 유튜브(2018년), 블로그(2018년) 등 5종이다.

시 공보과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만항구 목포' 홍보와 관련해 제작된 콘텐츠가 무려 300여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SNS에 '남만항구 소식'이 매주 7~8건씩 소개됐고, '맛의 도시 목포' 등 목포를 홍보하는 웹툰도 5차례 제작·게재돼 신선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스팟 동영상 제작 게시한 건은 모두 38회로

집계됐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단 40명을 운영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은 주로 콘텐츠를 발굴 게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 간담회 개최, 소양 교육, 팸 투어 등을 통해 활동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유달산 봄 축제와 목포가 을페스티벌 행사에선 구독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각 부서별 SNS 소통 홍보관 130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이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두 차례 교육도 실시했다. 시 공보과는 앞으로 목포시 공식 SNS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제출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시는 이를 위해 특색 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홍보를 강화하고 SNS 소통 홍보관들의 시청홍보 콘텐츠 발굴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SNS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선제적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황성용 목포시 홍보기획팀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청 전반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더불어 '남만항구 목포'의 도시 브랜드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씨월드고속훼리, 전남도 자원봉사자대회 우수기업 선정

목포-제주, 해남우수영-추자-제주 구간을 운항하는 씨월드고속훼리(주)가 '2019 전남도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 20년동안 소년 소녀가장과 범죄 피해자 등을 초청해 해마다 제주도 여행·만찬을 개최하고, 광주 월곡동에 정착한 고려인을 초청해 제주도 여행을 실시했다.

이처럼 씨월드고속훼리 회장은 목포 지역 최초로 양동제일교회 경로대학을 설립해 24년간 학업을 역임하는 동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

발로 노인 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2008년 목포 복지재단을 설립,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사랑의 밥차·보급자리 개선·저소득층 지원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목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 심리 치료 및 경제적 지원, 사랑의 연탄배달 등 어려운 이웃의 배움목이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회장은 "씨월드고속훼리가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이혁영(가운데) 씨월드고속훼리 회장이 지난 28일 전남도청 강대중강당에서 열린 2019 전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자원봉사 우수기업 헌패를 받고 있다.

새마을문고 전남지부, 국민독서경진 예선대회 시상식



새마을문고전라남도지부(회장 박영수)는 국민의 독서저변확대와 독서생활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 제39회 국민독서경진 전라남도예선대회 시상식을 지난 2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새마을문고 지도자와 각 부문별 수상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과 분행사, 심사평, 시상, 대화사 및 격려사, 우수작품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1981년부터 시작해 39회째를 맞는 국민독서경진 대회는 마을문고 및 독서(대학)

회 등의 운영부문과 독후감 부문으로 나눠 열린다.

올해 종합평가 부문 최우수상은 새마을문고목포시지부가 독후감 부문 최우수학교는 도지사상으로 초등부 여수미평초등학교, 중등부 예당중학교, 고등부 예당고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독후감 개인부문 및 편지글은 초등·중등·고등·일반부 최우수상은 전라남도 교육감상, 우수는 도의회 의장상, 장려는 도문고회

장상으로 총 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